

# 전통의 아름다움 '수수나눔전' 개최

전주공예품전시관, 2월 5일까지 나영혜 작가 작품 전시 · 2월 19일까지 온브랜드 프로모션 기획전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은 2월 5일까지 다은관(전시 1관)에서 '2023 수수 나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수나눔전'은 청년 작가의 작품을 전시, 시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예품 나눔을 통해 일상 속 공예문화 생활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수수나눔전'에 초청된 나영혜 작가는 침선과 한지를 소재로 작업에 나선다. 오랜 노하우를 통해 한지 위에 감칠맛하거나 패턴을 만들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 작품 중 '선불'은 침선과 한지를 결합한 작품으로 나영혜 작가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수놓아진 작품에서 작가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나 작가는 이벤트로 '공예 북주머니'를 선착순 배포할 예정이다. 전시 현장에서 작품 촬영 후 개인 SNS에 공유하면 공예 북주머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라온관(전시 2관)에서는 내달 19일까지 무형문화재 장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제작한 작품 전시 '온브랜드 프로모션 기획전'이 진행



나영혜 작가 답음(옥사, 견사)

된다.

김도영 원장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의 침선 작품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전통문화재단은 지역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덕망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학교 · 도서관 1110곳 미디어교육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도서관 등 총 1110곳을 선정해 미디어교육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KPF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도서관 등에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교육하는 사업이다. 뉴스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확산을 위한 것으로, 학교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사회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평생교실'로 구성됐다.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는 전국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총 950개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미디어교육 운영학교-KPF 애드 스톨'에 참여할 학교도 별도로 공모할 예정이다. /뉴시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20일 전주MBC(대표이사 김한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통합CMS 구축 · 운영 지원 사업설명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는 31일 오전 10시 zoom을 통해 '통합CMS 구축 · 운영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은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의 일환으로 신문법에 규정된 일간·주간·인터넷신문(무료신문 제외)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의 예산은 24억8500만원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는 3년간 CMS 구축 ·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4년차에는 운영비의 30%, 5년차에는 60%를 신문사가 부담하며 6년차부터는 신문사가 자체 운영한다. /뉴시스

## 전주문화재단-전주MBC '맞손'

지역 문화예술 확산 · 전문 인력 교류 상호 협력키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20일 전주MBC(대표이사 김한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 문화확산을 위한 협력,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의 교류,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문화방송 김한광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흥진 방송콘텐츠본부장, 장인석 방송지원본부장과 오디오혁신팀의 박규현

팀장, 이충훈 아나운서 등이 참석하고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백옥선 대표이사, 서용선 사무국장, 변재선 팔복기획운영팀장, 김정경 문예진흥팀장, 김주희 예술놀이팀장 등이 함께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확산과 전문 인력 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시민의 문화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창세기 출판

히브리어&헬리어 번역출판사 박경호 목사, 7번째 직역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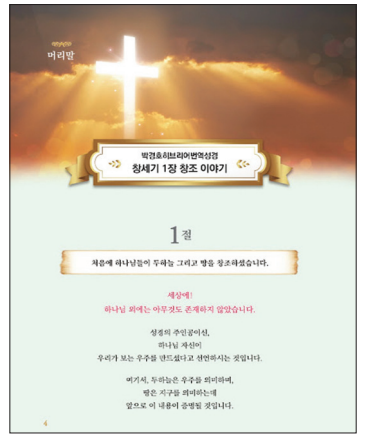
박경호 히브리어 & 헬리어 번역위원이 20여 년이 넘게 순수번역 순수진리 탐구만을 목적으로 끈질긴 노력과 연구 끝에 완전지역에 성공해 지난해 10월,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창세기를 출판했다. 이번 창세기 출판은 박경호 헬리어 번역성경 NEW 4복음서와 요한계시록, 로마서에 이은 7번째 직역성경이며, 준비부터 출판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된 역작이다.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은 벤카임 맛소라 사본을 원전으로 하여 온전히 한글로 1:1대응 원칙에 따라 번역했다. 1:1한글 대응 번역은 세계 최초로 박경호 히브리어 & 헬리어 번역성경만의 독특한 번역방식인데, 원어 한 단어가 쓰인 수 백건의 용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모든 문장에 들어맞는 한 단어를 원어의 의미에 부합되는 단어로 판단해 그 단어를 번역된 한글 한 단어로

정의 내려 주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우리 말을 만들어 전체 성경에 적용된 단어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것이 1:1한글 대응 번역이며 박경호 히브리어 & 헬리어 번역성경은 어원을 분석해 원 뜻을 밝혀 보임으로써, 기존의 성경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의 구절들을 발견해 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창세기는 고어체와 서술체가 아닌 경어체와 대화체를 사용했으며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고려한 의역이 아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지만 있는 뜻 그대로를 직역해, 독자들이 마치 스크린을 보는 듯 생동감 있게 원문의 원래 의미가 최대한 전해지도록 했다.

역자 박경호 원장(예장 합동 사복음교회 담임목사)은 20년 넘게 원어 번역에 매진



한 원어 성경 연구가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많은 오역들을 발견하고서 성경 원어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현재 원어성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박경호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으로서 번역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전세계 성도들을 위해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자로서의 영역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박 원장은 "향후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박경호 헬리어 번역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공동서신을 박경호 히브리어&헬리어 번역성경을 영어 및 전세계 자국의 언어로 번역 출간하여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전후후 박경호히브리어 번역성경 창세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문화재청, 미달된 대장간 심화 · 한식석공 과정 추가 모집

문화재청은 25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추가 모집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을 위한 1년 과정 교육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이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한 양성과정 교육생의 약 50%인 218명 합격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가 강사진으로 참여하며, 실기 중심의 소수정에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료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는 등 무료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생은 실습재료 제공, 기숙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 분야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모집한 과정 중 수강생 일부가 미달된 '대장간 심화'와 '한식석공' 종목이다. '대장간 심화'는 문고리, 풀썩기 등 전통 건축철물 제작을 학습하는 심화과정이다. '한식석공'은 각종 전통 석물 가공에 대한 기능 연마를 학습하는 현장위탁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년이며, 모집인원은 종목별로 각 3명 내외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